

전주 도심융합특구 ‘도전’…AI 혁신거점 도약

전주역세권 AI 복합거점 조성
AI·로봇 혁신 인프라 집적
새만금·완주·전주 연계
연내 최종 후보지 선정 목표

전북도가 지역 경제 침체 및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성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주 도심융합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다극연계 체계(5극 3특)를 구축

하는 성장거점 네트워크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다. 대도시권에 특구를 조성해 각 지역이 독자적인 경제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자립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앞서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특구를 지정한 데 이어, 대상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로 넓혔다.

전주 도심융합특구는 '내일을 만드는 기술, 전북 발전의 대도약을 위한 AI 신뢰·제조 혁신코어'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전주역세권 배후지 일대를 대상으로 산업과 주거,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직·주·락(職·住·樂) 복합거점을 만든다는 구상.

특구에는 AI 신뢰성 검·인증센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혁신캠퍼스, 로봇 실증 공유센터 등이 집적돼 데이터 수집부터 기술개발, 성능 검증, 공인 인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인프라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구 종사자와 지역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여건 조성을 위해 직주근접형 'AI산업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도는 새만금의 첨단 로봇 제조 클러스터, 완주의 피지컬AI 연구·실증 기반, 전주의 AI 신뢰성 검·인증 및 사업화 기능을 유기적으로 엮어 '새만금-완주-전주'를 잇는 전북권 AX(AI 대전환) 전주

기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와 전주시는 지난 2월 특구 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전북연구원과 LH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도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공모 신청 기확안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도와 전주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국토교통부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에 적극 대응해 연내 최종 후보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추석 전 국무위원 인사청문 마무리”

“전문성·현장 경험 앞세운 인선”
야권 개각 비판에 강력 반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과 관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단 한 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로 정책 역량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이번 인선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각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 "인사청문회 일정



한병도 대표

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낙인부터 찍고 흠집내기에 나섰다"며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개각에 재를 뿌리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정점으로 끝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로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사'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다'며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김영목기자

李대통령 2기 개각 단행…6개 부처 장관 교체

경제 이형일·국토부 홍지선 등
김윤덕·안규백 국회 복귀
AI수석·메가프로젝트 보강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6개 부처와 청와대 공석 참모진을 임명하는 등 이재명 정부 제2기 개각을 단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55) △법무부 장관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7) △국방부 장관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58) △성평등가족부 장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6) △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5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민주당 의원(41)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개각에 따라 전북출신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 국회로 돌아오게 됐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과



이형일 1차관



김승원 의원



강신철 前 부사령관



용혜인 의원



홍지선 2차관



이소영 의원

관련 경제정책 라인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A&M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홍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 졸업 후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에서 근무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5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1기)에 합격했다. 2020년 총선에서 경기 의왕시·과천시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 22대에서 재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재선의원이다. 김 후보자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한 후 전주지법·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는 1990년대생으로 경기도 부천 출생이지만 안산에서 성장하며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한미연합군 부사령관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육사 성골'로 꼽힌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강훈식·위성락·김용범' 3실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청와대팀 보강 인사를 단행했다. 공석인

AI미래기획수석과 신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을 인선했다.

AI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53)을 선임했다. 이 수석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으로, AI 기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또 부산 재보궐에 출마했던 하정우 전 수석(49)은 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 발탁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 단행과 관련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 사회적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면서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 대표 발의

반출기한 등 조건 부과 근거 마련
위반 시 감세 혜택 배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고의적인 지연 반출을 막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반출기한을 정하는 등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임부개정법률안(일명,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업자의 의도적인 반출 지연 및 사재기 등 짚수를 막고, 물가안정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감세 혜택을 받은 물



윤준병 의원

품에 대해 '신속한 국내 시장 유통 및 반출 기한'을 강제하거나 이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징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할당관세 제도는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적 조치"라며 "그럼에도 일부 몰염치한 수입업자들이 관세 인화 혜택만 가로채고, 시세 차익을 노려 물건을 창고에 묶어두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명백한 '물가 새치기'이자 국민 기반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추석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도축장 집중관리

도내 21곳 검사인력 탄력 운영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도축물량 확대에 대비해 오는 18일까지 3주간 도내 21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도축검사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는 동시에 도축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추석 성수기 3주간 도내 도축장에서 소·돼지와 닭·오리 등 축산물 48만 4,698마리가 도축됐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축장별 작업

일정과 물량을 사전에 파악해 작업 시작시간에 맞춰 검사관을 조기 배치하고, 물량이 집중되는 작업장에는 검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휴일 도축이 실시되는 경우에도 검사관을 현장에 배치해 성수기 축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도내 도축장은 포유류 10곳과 가금류

11곳 등 총 21곳이다. 이 가운데 일부 도축장은 추석 성수기 물량 처리를 위해 평소보다 작업시간을 앞당기거나 휴일에도 도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업장 위생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축 운송차량 소독과 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병행해 도축 단계부터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

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추석 성수기에는 평소보다 도축물량이 증가하는 만큼 원활한 축산물 공급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축 현장

여건에 맞춰 검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함께 해요 !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하는데 500년 !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을 줄이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고 함께 실천 해요!

경진원 “추석선물 전북생생장터 구매” 당부

로컬상품관·사회적 경제기업 최대 40% 할인… 9월 한 달간 기획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전북생생장터(www.freshjb.com)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우수 농수축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도내 농가와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한 달간 로컬상품관(소상공인) 선정업체 상품을 대상으로 30% 할인,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은 40% 할인, 익산원예농협 상품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는 추석 명절

행사 행사가 이어진다.

전북생생장터 추석 명절 카테고리 상품(쌀 제외) 대상으로 20% 할인을 적용하고, 해가람(수산물) 인증업체 상품은 25%, 6차산업 인증업체 상품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구매 고객은 1인당 3매까지 할인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쿠폰은 최대 3만원까지 할인된다.

단일 상품을 50만원 이상 구매하는 기관·단체 및 대량구매 고객에게는 1인당 3매, 최대 30만원 한도의 대량구매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제철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제철제맛’ 기획전은 사과와 배를 진흥원과 전북농협의 매칭 지원을 통해 최대 40% 할인으로 진행한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매일 9시에 운영된다.

매일 한정 수량으로 소진 시 종료되고 기한 내 익일 판매가 재개된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금쌀DAY’도 오는 4일 단 하루,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행사 당일 전북생생장터 쌀 카테고리 상품을 대상으로 20% 할인을 지원해 고품질 전북 쌀을 특별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예산 소진 시까지 전북은행카드, 농협은행카드는 2만원 이상 결제 시 10% 청구할인(최대 3만원), 토스페이로 결제하는 모든 고객은 2% 즉시 할인(최대 2만원)도 진행한다.

할인율과 적용 조건은 결제 단계 및

<사진=전북경제통상진흥원>

행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생생장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에게는 알뜰한 명절 준비의 기회가 되고, 지역 농가와 기업에는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판로 확보로 이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생생장터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농협>

‘익산 햇배’ 대만수출 선적식 개최

전북농협-익산원예농협 농가 소득 증대 도모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학)은 지난달 28일 익산 관내 생산 ‘2026년산 햇배’의 대만수출을 기념 선적식을 가졌다.

익산원예농협은 2025년 ‘배수출 전문단지’ 지정에 바탕으로 품질관리와 생산체계를 엄격히 유지하며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익산 배는 우수한 일조량과 토양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작년 베트남과 캐나다 수출에 이어 올해 대만으로 판로를 넓힌 이번

수출물량은 총 32톤규모다.

전북농협과 익산원예농협은 금년 내 추가 수출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봉학 익산원예농협 조합장은 “이번 대만 수출은 익산 배가 세계 시장에서 명품으로 인정받는 출발점”이라며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배가 제값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전북 농산물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식탁으로 향하고 있다”며 “더 많은 해외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내달 16일까지 농어촌 지역 4000가구 대상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2026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다.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농어촌 지역(읍면) 4000가구 만 19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연구 기관인 코뮤니타스에서 조사를 맡았다.

코뮤니타스 조사요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인쇄된 설문지를 토대로 가구주와 가구원에게 질문하거나, 가구주 등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2027년 3월 공표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김상범 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된다”며 “조사 대상 가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진다.

1년 차에는 종합 조사, 2~5년 차에는 부문별 조사로 진행된다. 올해는 기초

<사진=농촌진흥청>

생활여건,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환경 및 경관, 안전 부문 등 5개 부문 83문항을 조사한다.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공사 민원접수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인증 취득

대표 누리집 인증 유지 관리역량 입증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민원 접수 플랫폼 ‘전기안전여기’로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신규 취득하며 디지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였다.

개인정보보호 인증(ePRIVACY PLUS)

은 개인정보 생애주기 관리체계와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다각도로 검증해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증 제도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웹사이트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심사에서 공사 민원 접수 플랫폼인 ‘전기안전여기’가 개인정보보호 인

증을 신규 취득했다.

‘전기안전여기’로는 현재 60만여명이 이용하는 공사의 주요 대국민 서비스다. 아울러 공사 대표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는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기존 인증을 유지했다.

공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처

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사진=한전 임실지사>

한전 임실지사, 전통시장 긴급 전력안전점검

신속 일상복귀 지원

한전 임실지사(지사장 김갑현)는 지난 달 30일 임실군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임실전통시장을 찾아

긴급 전력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폭우로 시장 내 다수의 상가가 침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누전, 감전사고 및 추가적인 전기 화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전 임실지사 긴급복구반은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들을 방문해 △누전차단기 동작 여부 △차단기 및 분전함 내 물유입 확인 △침수 콘센트·배선 교체 및 건조상태 점검 등 종합적인 전기 안

전점검을 진행했다.

습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침수 시 전기 취급 요령과 안전한 전력 사용 안내를 병행했다.

김갑현 임실지사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한전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임실지사는 향후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전력지원 활동을 이어가도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역 복합특화설계 ‘아르티엠 라 테라스’ 오픈 앞뒤

전용 84㎡ 총 322세대 생활 인프라 확충 기대

현재 전주 아파트 분양 시장 관심이 전주역 일대로 향하고 있다.

이유로는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전주 MICE 복합단지 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전주역을 중심으로 동부권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세영건설 시공 ‘아르티엠 라 테라스’가 이달 오픈을 앞두고 있다.

‘아르티엠 라 테라스’는 전주역을 생활권 내에 두고 덕진구 신축 아파트로서 교통시설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생활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거상품에서도 기존 아파트와 차이를 두며 대표적으로는 84B·C 타입에는 세대별 프라이빗 테라스가 마련된다.

이에 실내공간에 머물던 아파트 생활영역을 외부공간까지 확장해 세대 안에서 휴식이나 티타임 등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별도로 외출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외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의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상층 근린생활시설에는 스카이 피트니스 센터 조성 예정으로, 전주 일대 전망을 바라보며 운동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에 조망이라는 요소를 더해 색다른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급된 아르티엠 브랜드 분양 성과에서도 눈길을 끈다.

2025년 공급된 ‘전주 송천 아르티엠 더 숲’은 최고 경쟁률 39.4대 1을 기록하며 100% 분양을 마쳤다.

군산에서 공급된 조촌 아르티엠 1·2차



역시 각각 단기 완판과 초단기 완판을 기록했다.

아르티엠 브랜드 분양 경험과 특화설계는 이번 전주역 ‘아르티엠 라 테라스’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아르티엠 라 테라스’는 전용 84㎡ 타입, 총 322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300세대로 구성되며 세영건설이

아르티엠 라 테라스 조감도

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전주역 아르티엠 라 테라스는 전주역 생활권 장점과 입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길 건너편에 마련된다.

천호성 교육감 “도의회 존중… 협력 나설 것”

업무 20% 줄이는 조직 개편… 중복 업무 정비 인력 재구조화 지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최근 불거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와의 마찰과 관련해 관계 회복 의지를 밝히는 한편, ‘업무 20% 감축’을 목표로 한 과감한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천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도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도의회는 교육청의 매우 중요한 파트

너이자 도민에 의해 선출된 분들”이라며 “도의원을 만날 때 도민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예우를 다해 임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도의회를 더욱 존중하면서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천 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천 교육감은 “새로운 행정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옷장에 쌓인 헌 옷을 버려야 새 옷을 채울 수 있듯 이번에도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각 부서장이 소속 인력과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 부서



<사진=전북교육청>
천 중북 업무를 정리하고, 책임지고 일을 20% 줄여 인력 통폐합과 재구조화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장수군>

장수군청 여자탁구단, 개인복식 우승

단양군 내셔널컵서 기량 입증

장수군은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이 ‘2026년 단양군 내셔널컵 실업탁구대회’ 여자 개인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충북 단양군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장수군청을 비롯해 양산시청과 금천구청 등 전국 8개 실업탁구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여자 개인복식에 출전한 유민지·이은주 조는 결승에서 금천구청 소속 선수들과 맞붙어 세트스코어 3대 2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

두 선수는 경기 내내 안정적인 호

흡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세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특히 승부가 결정되는 마지막 세트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우승을 확정했다.

문보성 감독은 “대회 일정 내내 선수들이 체력과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싸워줬다”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더욱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열리는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값진 우승을 이뤄낸 선수들과 지도자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선수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하반기 고창 시티투어버스’ 본격 운행

5일~11월 21일까지 역사·생태·축제 연결

고창군이 지역의 대표 관광지와 축제 현장을 연결하는 ‘2026년 하반기 고창 시티투어버스’의 첫 운행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하반기 시티투어버스는 오는 5일 첫 운행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고창군 주요 관광지 일원에서 운행된다.

가을철 힐링·회복형 관광 수요에 발맞춰 고창의 핵심 역사·생태 자원과 지역 대표 축제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테마형 코스로 전격 개편됐다.

첫 포문을 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코스’는 운곡탐사르습지와 탐사르갯벌센터, 국보순화전이 열리는 고인돌박물관을 잇는 코스로 고창의 세계유산 가치를 깊이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지친 일상 속 휴식을 선사하는 △‘치유관광 코스’는 상하농원, 고창읍성, 선운산도립공원 등을 순회한다.

10월에는 가을 대표축제 현장으로 안내하는 △‘모양성제 연계 코스’가 운행돼 관내 소비와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선운산도립공원 단풍을 즐기는 △‘단풍 연계 생태·문화 코스’도 순차적으로 탑승객을 맞이한다.

시티투어버스는 45인승 버스로 매회 오전 10시 고창 임시터미널 3번 플랫폼에서 출발해 각 코스를 순회한 뒤 오후 5시에 돌아오는 일정이다. 모든 일정에는 전문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유쾌하고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1인당 1만원이며, 예약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 및 세계유산과 전화 예약으로 가능하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번 하반기 시티투어버스는 고창이 자랑하는 세계유산과 청정 자연, 다채로운 가을 축제를 가장 편안하고 알차게 만날 수 있는 여행길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대한민국 대표 가을 힐링 도시 고창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대 박물관 ‘수장고’ 시민에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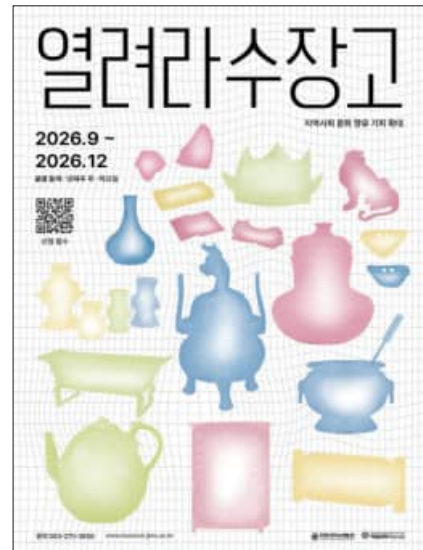
12월까지 매월 2·4주 운영

전북대학교박물관이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유물 수장고를 개방하고, 지역 문화유산 공개와 큐레이터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대박물관은 지역사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수장고 개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박물관 수장고의 보존·관리 시스템과 실제 유물 정리 현장을 둘러보고, 전라강영에서 서적 인쇄에 사용했던 책판과 조선시대 고문서 등 주요 소장 유물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 등을 위한 큐레이터 진로체험도 병행한다. 참가자들은 박물관 학예사의 역할을 배우고, 문화유산 복원과 포장 등 실무 과정을 직접 실습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최성민 기자



<사진=전북대박물관>

프로그램은 회차당 최대 15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운영한다.

수장고 관람은 전북대박물관 누리집에서, 큐레이터 진로체험은 교육기부 진로체험 플랫폼 ‘꿈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수공예 가치 선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박물관 2층에 위치한 시민열린갤러리에서 오늘부터 내달 18일까지 수문화예술교육센터 회원 단체인 ‘제4회 작가들의 외출 전통과 현대’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수공예 기법을 통해 탄생한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완성한 인형을 비롯해 손끝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엮어 만든 마크라메, 사진을 섬세하게 조각한 레이저 공예, 한 코 한 코 뜯 손뜨개, 다채로운 색과 조각이 어우러진 펠트, 그리고 자연이 건넨 선물과도 같은 꽃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압화 작품 등 각기 다른 재료와 기법으로 완성된 각양각색의 공예 작품 30점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통 공예 기법에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접목해 ‘사람의 손’이 만들어낸 시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고 매

듭을 지으며 재료를 다듬는 창작의 과정을 통해 수공예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수문화예술교육센터는 폭넓은 문화예술 활동, 공예 교육·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문화예술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과 창작 및 전시 활동을 이어가며 수공예의 표현 영역을 넓히는 한편,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등을 기획·운영하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완성한 작품들은 저마다 고유한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관람객에게 사람의 손에서 비롯된 공예만의 깊고 따뜻한 감성을 전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따뜻함이 담긴 수공예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립도서관, 독서문화 행사 ‘풍성’

익산시는 이달 한 달간 지역 시민도서관 곳곳에서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생각의 폭을 넓혀줄 작가 강연이 이어진다. 오는 9일 모현도서관에서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신작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바탕으로 ‘변화의 시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10일 영등도서관에서는 문화평론가 정지우 작가가 ‘SI 시대에도 우리는 왜 읽고 써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 12일 모인여행순도서관에서는 세계 90여 개국을 여행한 박성호 작가가 여행을 통해 만난 다양한 문화와 사람, 도전의 가치를 들려준다.

책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도 마련된다. 18일 영등도서관에서는 익숙한 영화음악과 원작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만나는 영화음악 북콘서트 ‘오버 더 필름’을 선보인다.

책과 도서관을 보다 재미있게 경험하는 참여형 행사도 이어진다. 영등·부송·유전·금마·황등도서관에서는 9개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독서 유형을 알아보는 ‘독서 취향 밸런스 게임’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도서관별 원화 전시와 북 큐레이션, 사서 추천도서와 ‘1주 1책’ 추천도서 소개자 배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달 한 달간 이어진다.

프로그램별 운영 일정과 참여 대상,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관계자는 “시민들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신에게 맞는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책과 함께 특별한 가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비오는 날 안전수칙

운전 시 주의사항

- 20~50% 감속
- 안전거리 2배 확보
- 빗길 감속 운전
- 전조등 켜기
- 와이퍼/타이어 점검

보행자 주의사항

- 맨홀 뚜껑 피하기
- 밝은 옷/우산 착용
-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 사용 금지

이사 시 주의사항

- 물기 즉시
- 이중 포장
- 가전/가구 비닐 포장
- 물기 즉시 제거
- 탐차 이용 확인

반려동물 산책 시

- 고인 물 웅덩이 X
- 강아지 우비 착용
- 산책 후 건조
- 강아지 우비 착용 웅덩이 물 마심 금지
- 귀가 후 완벽 건조

‘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 해상풍력 산업 중심시 도약

(사)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은 지난달 31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2026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재준 군산시장,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 김강주 군산대학교 총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포럼 회원,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학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 해상풍력 공급망의 과제와 군산·새만금의 해상풍력 공급망 허브 거점 전략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태환 에드베트 대표이사가 ‘전북 특별자치도 해상풍력 공급망의 과제’를 짚어본 데 이어, 박재형 군산대학교 교수가 ‘군산, 새만금 해상풍력 공급망 허브 거점 전략’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과 군산·새만금의 산업적 역할, 해상풍력 설치 인프라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역의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 해상풍력 공급망의 과제와 군산·새만금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함열, 주민 주도 도시재생으로 지역에 활력

익산시 함열읍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변화를 찾고 생활공간을 가꾸며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함열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한 5개 주민공동체가 각 공동체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주민공모사업은 함열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주민들이 지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공간을 직접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5개 팀 가운데 ‘아트포맨팅’과 ‘마을관리단’은 골목길 경관을 개선하며 지역에 새로운 풍경을 더했다. 아트포맨팅은 지난달 18일 낚고 밋밋했던 벽면에 해바라기 벽화를 완성했다. 마을관리단은 지난달 27일 ‘꽃길따라 썬치주차장’을 주제로 썬치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꾸몄다. 벽면을 따라 코스모스를 그려 넣어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화사한 분위기를 더했다.

함열지역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 활동은 계속된다. 나머지 3개 팀도 각 공동체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벼 대신 참깨 5ha” 정읍 논농업에 새 선택지

정읍시가 벼를 재배하던 논에 참깨를 심어 안정적인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며 농가 소득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함께 꾀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7일 달수축산영농조합의 참깨 재배지에서 ‘논 타작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현장평가를 열었다. 사업 관계자와 참여 농가, 참깨 재배에 관심 있는 농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합은 기존에 벼를 심던 논 가운데 약 5ha를 참깨 재배지로 바꿨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논에서도 참깨를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수확 작업에 드는 일손을 줄여주는 농기계계를 지원했다.

현장에서는 참깨 줄기를 베는 예취기를 활용한 수확 작업이 펼쳐졌다. 참깨는 비교적 소득성이 높은 작물이지만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에서는 뿌리가 수분 피해를 입기 쉽다. 이번 시험 재배지는 배수시설을 알맞게 관리하고 논에 맞는 재배기술을 적용한 데다 올해 기상 여건도 비교적 좋아 참깨가 전반적으로 잘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논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보급해 농가소득 향상과 쌀 수급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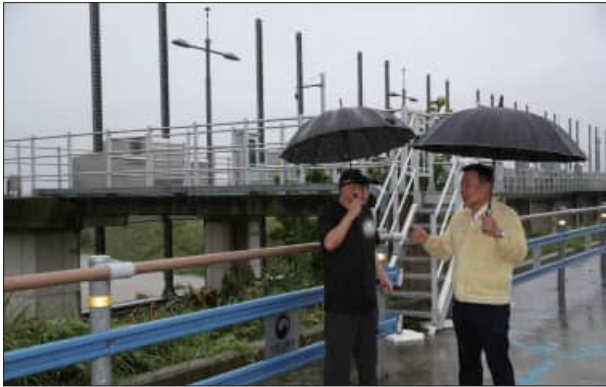
익산시, 폭우 피해 대응 총력 2(題)



익산소방서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폭우 피해 발생에 따라 긴급 안전 조치를 나섰다. <사진=익산소방서>

풍수해 복구·긴급 안전 조치

익산소방서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인해 지역 내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 피해 복구 및 긴급 안전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지난달 29일 밤 10시 30분 비상 1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익산소방서도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30일 0시 26분경 남중동의 한 주택으로 물이 넘친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31일 오전 3시 2분경 낭산면도로 침수 신고까지 총 49건의 풍수해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관계 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했다. 소철한 익산소방서장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장이 지난달 30일, 31일 양일간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있다. <사진=익산시의회>

국지성 호우 피해 현장 방문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장이 지난달 30일, 31일 양일간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상가와 배수펌프장을 긴급 방문했다. 김충영 의장은 주말 중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상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유천, 목천 배수펌프장을 찾아 배수시설 관리상태를 살펴보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김 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찾아진 만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침수가 발생한 상가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을 막기 위한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11만82마리 대상... 안내 및 현장 점검 강화

정읍시가 이달 소·염소 사육농가 1760곳의 가축 11만82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에 나선다. 접종 대상은 소 사육농가 1593곳의 9만5582마리와 염소 사육농가 167곳의 1만4500마리다.

접종에는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O형과 A형 구제역을 함께 예방하는 ‘O+A형 2가 백신’을 사용한다. 시는 접종 기간 안에 대상 가축이 모두 백신

을 맞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접종을 위해 농가별 대상 가축과 사육 마릿수를 미리 확인한다. 접종에서 빠지는 가축이 없도록 농가 안내와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축산농가에는 접종할 때 가축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붙잡는 작업(가축보정)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접종을 마친 뒤에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가축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도록 안내한다.

일제접종 이후에도 실제 접종 여부와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를 꾸준히 확인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할 방침이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염소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에서 발생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발생하면 농가의 가축 피해는 물론 이동제한과 추가 방역으로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예방접종과 농장별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이학수 시장은 “구제역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백신접종과 농장 방역으로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상 가축이 한 마리도 빠짐없이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3일부터 18일까지 27개 읍면동 시민설명회

군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읍면동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설명회는 6일간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열리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A·B 2개 조로 나뉘어 각각 60분간 운영된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향과 권역

별 개편노선(안)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방향은 △기존 노선의 굴곡 및 중복도 개선 △주요 이동축 중심의 간선-지선체계 도입 △읍·면, 산업단지 등 교통 취약지 대상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도심 순환노선 도입을 통한 연계성 강화 등이다.

설명회는 노선 전면개편의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권역별 개편노선(안)과 주요 변경사항 안내, 질의응답 및 시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을 보완한 뒤, 도로·정류장·교통정보 시스템 등 관련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대시민 홍보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는 앞서 시민들이 직접 시내버스 이용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선개편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해 2437건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내버스 노선개편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하는 등 시민 참여를 통한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027년 예산편성 시동

타당성·효과성 재검토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익산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한 ‘작지만 강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2027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간다.

익산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부서별 주무계장과 예산담당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7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예산운영의 책임성·투명성·건전성을 높이고,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2027년도 예산운영 편성 방향을 비롯해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예산 요구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시는 내년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국제수입 여건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불가피하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누적된 만큼 재

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재정대 전환 추진단의 재정혁신 방향과 연계해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우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내년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작지만 강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살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신중년 응시료 90% 지원

자격 취득 및 재취업 도와

정읍시가 제2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신중년 미취업자에게 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의 90%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퇴직이나 경력 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신중년의 자격 취득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 초부터 ‘2026년 신중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64세 이하의 미취업자다.

지원하는 시험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 등이다. 응시료의 90%를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한도 안에서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다. 예산 범위에서 신청한 순서

대로 지급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서류도 대폭 줄였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기본 행정서류를 시민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통합신청서와 응시료 영수증, 응시확인서를 내면 된다.

시험에 응시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anmail@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열정을 지닌 신중년들이 자격증 취득을 발판 삼아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길 바란다”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시험에 응시한 시민들은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대표 맛집, 시민이 직접 뽑는다”

20일까지 온라인 설문

익산시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2026년 익산 시민추천맛집’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 중심의 맛집 선전에서 벗어나 실제 익산 음식점을 이용한 시민과 방문객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미식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 대상은 네이버 리뷰·저장 수, 티맵 실방문객 순위 등 빅데이터 분석과 1차 적격심사를 거쳐 추천된 음식점 165곳이다. 일반 권역 117곳과 원도심 권역 48곳이 후보에 올랐다.

설문조사는 익산 시민뿐만 아니라 익산 음식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익산시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설문 링크 또는 익산역·터미널·관

광안내소 등에 비치된 쿼알(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한식·중식·일식·양식·분식 등 5개 음식 분야와 원도심 권역에 대해 각각 추천하고 싶은 음식점을 최대 3곳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90곳을 대상으로 2차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위생·서비스·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60곳을 ‘익산 시민추천맛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업소에는 시민추천맛집 인증 스티커를 제공하고 홍보 리플릿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등을 제작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한다.

이용한 익산시 미식위생과장은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익산의 맛집을 선정하는 만큼 많은 분이 설문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지역인재 200명에 장학금 전달

총 4억 2440만원 지원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역 학생 200명의 꿈에 총 4억 2440만원의 장학금으로 힘을 보탰다.

재단은 지난달 28일 연지아트홀 공연장에서 ‘2026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우수인재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이학수 이사장, 이복형 시장의, 재단 임원 등 21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우수인재장학금 심사 대상자는 모두 732명이었다. 재단은 학업성적과 생활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20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이날 학생들에게 건넨 것은 장학증서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

지 말라는 지역사회의 응원과, 훗날 그 마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달라는 당부도 함께 전해졌다.

이학수 이사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곧 정읍의 미래이고, 여러분이 성장은 우리 지역을 더욱 힘차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받은 응원을 훗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우수인재장학금을 비롯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 1만여 명에게 116억6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벼 깨씨무늬병’ 예방 총력

군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벼 생육 후기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벼 깨씨무늬병’ 적기 방제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벼의 양분 소모가 급증하고 뿌리 기능이 약화되면서 도양 내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비철(양분 결핍)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벼 깨씨무늬병’은 이 같은 양분 결핍과 뿌리 활력 저하 시 발생하는 병해다. 초기에는 잎에 깨씨 모양의 작은 갈색 반점이 생기지만, 심해지면 잎 전체가 말라 죽고 이삭까지 반점이 번져, 벼알이 충분히 여물지 못하고 쌀 품질 떨어지게 된다.

이에 시는 고온기 벼의 양분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맞춤형 비료 10% 추가 공급을 사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적기 방제를 유도하고 벼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 깨씨무늬병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했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맞춤형 비료 추가 공급으로 벼의 양분 기반을 강화한 만큼, 이삭이 나오는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적기 방제와 물관리가 올 한 해 벼농사의 결실을 좌우한다”라며, “농가에서는 현장 방제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고품질 군산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240mm 폭우 속 현장 지원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 안정지원에 모든 행정력 총동원”

전북 고창군에 이틀간 2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심덕섭 고창군수가 피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 안정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고창군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틀간(지난달 30~31일) 누적강수량 242.1mm를 기록중이다. 특히 새벽 5시30분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아침 한때 시간당 30mm에 육박하는 거센 장대비가 내리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하천 유입량이 늘면서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오전 9시 10분을 기해 아산면 부정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주민과 차량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인근 아산면 삼인리에는 도로가 침수



되면서 저지대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에 대피해 있다.

심원면 공산저수지도 10시 30분 현재 저수위 7.96m로 홍수위(7.5m)를 넘긴 상태로 긴급방류를 통해 수위를 낮추고 있다.

이번 폭우로 11시 기준 공공시설 피해(도로파손 등) 5건, 사유시설 피해 10건(주택침수 등) 등으로 집계됐다.

하천주변 도로와 산책로의 출입이

제한됐고, 일반도로도 아산면 남산제-죽산제도로, 병암교차로 등의 교통이 통제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절대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 침수우려 지역에 나가시지 마시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김제·고창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발전” 2(題)

김제시, 대시민 토론회위원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2층 상강실에서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신광식 위원장 등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해 ‘2026년 하반기 백년 김제 대시민 토론회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제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하반기 토론 주제 및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위원 위촉장 전수를 시작으로 지난 2025년 하반기 토론회 개최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하반기 토론회 운영방식 및 토론 주제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광식 민간위원장은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위원회가 김제의 주요 현안을 함

께 고민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김제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백년 김제 대시민 토론회위원회는 김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소중한 공론의 장”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김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고창군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창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고창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군정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농·수·축산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군정 참여 확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군 재정수입 확대 및 예산 절감 △지역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그

밖의 군정 발전 방안 등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고창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사전검토와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고창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희망나눔캠페인’ 우수 평가

나눔 문화 확산 결실 인센티브 2000만원 확보

부안군이 지난달 27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희망2026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우수시군 선정으로 부안군은 2000만원의 복지사업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희망2026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추진된 모금 실적과 나눔 문화 확산 기여도, 기부자 발굴 노력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부안군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지역 기업, 사회단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웃돕기 분위기 조성과 나눔 실천에 앞장선 기부 유공자 3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유공자 부문에서는 △아리울한우명품관 신영순 대표가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사 표

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부안읍 박승덕 이장 △변산면 정상열 이장이 각각 전북공동모금회장상을 수상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돕기에 동참해 주신 군민들과 유공자분들 덕분에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 확보한 인센티브 2000만원은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에 소중히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추석 맞이 ‘고창사랑상품권 최대20%’ 혜택

선할인+후캐시백 지역경제 활력 기대

고창군이 추석을 맞아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고창사랑상품권 최대 2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먼저, 상품권 구매시 즉시 적용되는 선할인 10%가 적용된다.

동시에 고창사랑카드도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창사랑카드 이용자는 최대 20%의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구매한도는 1인당 70만원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와 명절 준비 등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창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명절 소비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자금 순환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추석 특별할인은 민선9기 공약사업 제1호인 군민활력지원금 지급과 함께 추진된다.

군은 1인당 30만원의 군민활력지원

금으로 명절을 앞둔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내 소비촉진을 기대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 20% 특별할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활력지원금과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시, 국도·국지도 2개 사업 예타 통과

4530억원 투입 예정

김제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2개 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노선은 전주 도로~김제 공터, 김제 공터~군산 대야 국도 21호선으로 총 연장 20.4km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2개 사업에 4,5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시가 전북도, 전북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수년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대응한 결과 전북지역 5개 사업중 2개 사업이 반영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청년포럼’ 오는 8일 열려

청년정책 등 의견 나누

부안군은 오는 8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2026년 부안 청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청년이 그리는 부안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부안 청년과 지역 주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함께 살펴보고 청년의 시각에서 부안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방적인 정책 설명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전문가와 함께 청년정책과 지역 현

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큐서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청년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향후 청년정책 발굴과 지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참가 신청은 부안청년포럼을 통해 안내되는 네이버폼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준비 태세 돌입

제1차 추진 상황보고회 개최

김제시가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제1차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지난 달 31일 보고회는 양유미 홍보축제실장의 총괄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담당 프로그램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주차 대책, 위생관리, 친환경 축제 운영 방안과 함께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축제행사장 인과 밀집 대비 안전관리 대책’ 등이 논의됐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김제지평선축제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벽골제를 중심으로 ‘K-농경문화, 지평

선에서 빛나다!’를 슬로건으로 5개 분야 62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표 전통 행사인 ‘벽골제 쌍룡놀이’와 ‘입석줄다리기’뿐만 아니라 ‘드론 짚공 스타디움’, ‘지평선 캐치! 티니핑’과 ‘짚 테마파크’,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날리기’ 등 전통과 현대, 로컬과 글로벌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콘텐츠로 체류형 축제 공간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 농경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김제의 가장 큰 자산이자 대표 브랜드”라며, “축제장을 찾는 모든 국내외 관광객이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안전하고 감동적인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국내 최대 소비재 박람회 참가 지원

부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관내 우수 농식품 기업의 전국적인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를 위해 2026 일산 킨텍스 메가쇼 시즌2(이하 메가쇼)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가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로 오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국의 핵심 소비재 15만명과 전문 바이어 2만명이 방문하는 통합 마케팅의

장이다.

추진단은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관내 농식품 제조·가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가 부스 임차료를 지원한다.

4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부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기본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 전개

부안군은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과 감액 최소화 홍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사무소 및 부안군 4-H연합회와 함께 기본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7일 줄포 다목적체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부안군 4-H연합회 하계수련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부안군 4-H연합회 회원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농업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익직불금의 주요 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감액 제도 등을 안내하고 올바른 공익직불제 이행에 대한 청년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부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부안형 공익직불 감액ZERO 캠페인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 감액 사례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초가를 정취 달리는 ‘에코레일 자전거 투어’ 성료

김제시는 지난달 30일 자전거 전용 열차인 ‘에코레일’을 이용해 방문한 수도권 자전거 동호인 150명을 맞이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투어는 30일 오전 서울역을 출발해 에코레일 열차를 타고 김제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 전용 내비게이션으로 길 안내를 받으며 김제의 다채로운 명소를 자전거로 누볐다. 투어는 참가자들의 숙련도와 취향에 따라 세 가지 특화 코스로 운영됐다.

△로드 초급 코스(41km)는 두월천, 벽골제, 구일본인농장사무소, 죽산 메타세쿼이아길, 만경 농제저수지 등을 돌아보며 여유로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 △로드 중급 코스(53km)는 초급 코스에 서해안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망해사와 진봉면 일대가 추가돼 김제의 광활한 자연경관을 더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오프로드 코스(54km)는 대울저수지를 지나 꼬갈봉 임도와 샷갯봉 임도, 금평저수지 등 산악 구간을 달리는 코스로 설계돼 역동적인 라이딩을 선호하는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신영호 문화관광과장은 “봄에 이어 초가를 지평선의 비경과 임도를 자전거로 달리는 이번 2차 투어가 참가자들에게 김제의 매력을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자살예방교육 실시 “직장내 생명존중 문화확산”

고창군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31일 전 직원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개최했다. 자살예방교육은 2024년 7월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연 1회 실시가 의무화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주변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이 본인의 스트레스 지수를 직접 측정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병행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생명존중 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최순필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 스스로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은 물론, 동료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제11회 전북자치도 도지사배 등산대회 진안 마이산서 개최

진안군은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산악연맹 회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산 일원에서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배 등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악연맹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 산악연맹과 산악단체 등이 참여해 마이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산악인 간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특히 이번 대회가 열린 마이산은 독특하고 웅장한 두 봉우리와 신비로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진안의 대표 명산으로, 이날 도내 각지에서 1,500여 명의 산악인이 진안을 찾아 마이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어머니들, 호미 대신 대본 들고 열연

무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는 지난달 28일 주민들이 완성한 “사교X안방 엄마들의 서툰 극장(뮤지컬)”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사교 X 안방 엄마들의 서툰 극장(뮤지컬)”은 '2026년 시군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날 1부 무대에서는 “시장가는 날”, 2부에서는 “뱃이버디”를 선보였다.

뮤지컬 출연 주민들은 “이 나이에 무슨 뮤지컬인가 했는데 살림 말고, 농사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게 스스로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라며 “삶에 또 다른 도전과 재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10년 성장 밑그림 2036년 미래발전 청사진 마련

임실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한득수 임실군수와 정일운 임실군의회 의장, 전북연구원 연구진, 군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6 임실군 미래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을 내다보고 임실의 지역 여건과 미래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임실이 가진 강점을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군정 비전인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을 중심으로 △농생명 혁신 △지역경제 활력 △문화관광 융합성장 △지역균형 발전 △돌봄복지 고도화 등 5대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10개, 관광 8개, SOC 8개, 농업·농촌 6개, 식품 5개, 산업·경제 5개, 지역문화 5개, 복지 5개 등 8개분야 총 52개 세부과제가 발굴됐다.

52개 미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투자규모는 약3조 8,615억원으로 추산됐다.

재원별로는 국비 3조 2,449억원, 도비 2,946억원, 군비 2,841억원, 기타 358억원 등으로 전체사업비 가운데 국비 비중이 높은 만큼 국가정책 및 전북특별자치도 상위계획과의 연계, 국가예산 확보가 사업실현의 핵심과제로 꼽혔다.

군은 이번 전략을 단순한 중장기 계획으로 남기지 않고, 분야별핵심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에 이어지는 따듯한 나눔

안성중고 총동문화, 경로당에 TV 전달

바자회 수익금으로 기증

무주군 안성중고등학교 총동문화 골프동호회 여성위원회(회장 이순자)가 지난달 28일 '총동문화장배 골프대회'에서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안성면 금평 경로당(경로당 회원 30명)에 65인치 대형 텔레비전(2백만 원 상당)을 기증했다.

기증식에는 조병규 총동문화장과 박민철 골프동호회 회장, 이순자 여성위원회 회장이 함께 자리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들은 “해마다 동문과 만나 고향 발전과 이웃들의 행복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을 나누는 데 올해는 어르신들께 전하게 돼 흐뭇하다”라

며 “앞으로도 고향 무주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나가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텔레비전을 전달받은 안성면 금평경로당의 유재완 회장은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낙인데 텔레비전이 낡아서 그동안은 시청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며 “고향을 잊지 않고 마음 써주는 고마운 손길들 덕분에 앞으로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무주안성중고등학교 총동문화 골프동호회는 13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조병규 총동문화장배 골프대회와 바자회 등을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울이네 농장, 장학금 300만원 기탁



아이들 꿈에 힘이 되길

무주군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울이네 농장”을 운영하는 이종덕, 김민영 부부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3백만 원을 기부했

다.

이종덕·김민영 부부는 “농장을 일구며 지역사회에서 받은 감사한 마음을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라며, “이 장학금이 무주 학생들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제63회 도민체육대회 사전경기 성료

12개 종목 사전경기 열전 9월 4일 개최식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했다.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지난달 23일 롤러 종목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는 그라운드골프 등 12개 종목의 사전경기가 진행됐다.

이번 사전경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내 각 시·군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선수들은 서로의 기량을 응원하며 도민체전의 열기를 높였다.

진안군은 안전한 대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실무추진단장 이경영 부군수를 주재로 주요 경기장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경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장 및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교통·주차, 의료, 자원봉사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지난달 23일 롤러 종목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는 그라운드골프 등 12개 종목의 사전경기가 진행됐다 <사진=진안군>

등 대회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며 선수와 관계자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는 4일에는 진안군 공설운동장에서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식이 개최된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진안군 일원에서 본경기가 펼쳐지며, 전북특별자치도 각 시·군 선수단이 참가해 다양한 종목에 26개 종목의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사과농가 무인 방제기 현장 연시

자동 주행·방제 성능 선보여

장수군은 지난달 28일 사과시험장에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경로 학습 기반 무인 고성능 방제기 현장 연시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 사과농가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무인 방제기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과수원에서 이뤄지는 자동 주행과 방제 과정을 살펴봤다.

이번에 선보인 무인 방제기는 작업자가 과수원에서 장비를 한 차례 운행하며 작업 경로를 학습시킨 뒤 저장된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주행하며 방제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과 과수원에서 진행된 시연을 통해 무인 방제기의 작동 원리와 주행 방식, 방제 성능 등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군은 이번 현장 연시회를 계기로

무인 방제기를 비롯한 첨단 농업기술을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지역의 과수원 환경에 적합한 기술의 현장 적용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과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작업 기계화와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면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을 발굴·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만남의 날’ 개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방문 주민 대표 3팀 ‘빠망카드’ 전달

진안군이 지난달 31일 진안을 로컬푸드 직매장 광장에서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만남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군민 모두가 누리는 ‘월 15만 원의 행복’을 시작으로 기본사회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7·8월분 합산 1인당 30만 원)을 기념하고, 군민과 소상공인이 어우러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격적인 출발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전춘성 진안군수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송미령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김명갑 진안군의회의 의장 및 전운태 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사회연대 공동체 조직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어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군민 대표 3팀을 초청해 기본소득 선불카드인 ‘빠망카드’와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정전면 조립초등학교 농촌유학 3년 차 다자녀 가족(김진국·전송희 부부와 세 자녀), △축산일에 종

사하는 청년 영농후계자 가족(김정호·이지예 부부와 미취학 세 자녀), △청년 셰어하우스 ‘오래’ 입주민이자 관내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 중인 귀촌 청년 창업인 이정철 대표가 무대에 올라 각각 카드와 꽃다발을 전달받았다.

이어 송미령 장관과 전춘성 군수는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입구에 직접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한 뒤, 직매장 ‘1일 계산원’으로 변신해 소비자들을 직접 만났다.

군민들이 장바구니에 담은 농특산물을 직접 계산하고 빠망카드로 결제해주며 환담을 나누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본소득 정책의 기대효과를 청취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음악·무용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2일 ‘Classic KNOCK’ 공연

장수군은 오는 2일 오후 7시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예술답은 나라’의 다섯 번째 공연인 ‘Classic KNOCK’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연주자와 무용수가 각각의 배역을 맡아 하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융복합형 무용극이다.

소통의 부재로 답답함을 겪는 현대인들이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가는 과정을 다채로운 서사와 역동적인 무대로 풀어낸다.

이날 무대에는 이대정랑 지휘자와 관승연 연출가, 탁지혜 안무가를 비롯해 무용수 5명과 연주자 13명이 참여해 80분간 몰입감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서정적이면서 격정적인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시작으로 피아졸라의 탱고, 헨델의 ‘파사칼리아’,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등 친숙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인터넷 예매 시 초·중·고등학생과 65세 이상은 90%, 일반 관람객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홍삼축제 먹거리 사전품평회

위생과 가격까지 꼼꼼히 점검

진안군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6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먹거리부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전 품평회를 가졌다.

지난달 31일 산악초타운 홍삼실에서 열린 이번 품평회는 축제 현장에서 선보일 먹거리의 맛과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품평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13개 먹거리부스 운영자가 참

여해 각 부스에서 준비한 대표 메뉴를 선보였다. 평가위원들은 준비된 음식을 직접 시식하며 맛과 품질, 가격의 적정성, 메뉴 구성 및 다양성, 위생관리, 포장 및 판매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제장을 찾은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인지, 판매가격이 적정한지, 축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점검하며 참여업체에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의회 예결특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수)가 지난달 27일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9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오전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농가들 적극적 협조 당부

진안군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내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안군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소·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에 빠진없이 연2회(3월, 9월)구제역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 일제 접종은 소·염소 1만2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수의사와 포획 인력 등 접종 지원반을 구성하여

일제접종을 지원한다.

진안군은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임신 말기 등의 사유로 백신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한 추가 접종 등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은 만큼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빠진없이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라며, 농장 단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주식회사 도안,
무주군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도안(대표 이용현)이 지난달 31일 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부했다.

이용현 주식회사 도안 대표는 “무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무주 아이들과 지역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006명에게 56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기금으로 ‘인재육성 사관학교(기숙 학원비 지원 사업)’를 비롯한 ‘학생 온라인 수강권 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부안 디딤돌봉사단, 기후위기 교육
반려식물 키우기 활동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흥귀) 디딤돌봉사단(회장 강명례)은 지난달 27일 부안군 상생협력센터에서 지역주민 15명과 함께 기후위기 교육 및 반려식물 키우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디딤돌봉사단원 15명과 지역주민 15명이 1대 1로 연계해 진행했으며,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성길 강사의 재능기부로 기후위기의 이해와 일상생활 속 실천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어 반려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며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의 생애주기별 시니어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니어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강명례 디딤돌봉사단 회장은 “시니어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배우고 나누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화훼장식 분야 김금숙 씨 ‘군산시 명장’ 선정

압화대전 대통령상 수상

군산시는 화훼장식(압화) 분야 김금숙 씨(사진)를 ‘2026년 군산시 명장’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금숙 명장은 19년간 화훼장식(압화) 분야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꾸준히 쌓아왔다.

특히 국내를 대표하는 압화 공모전인 ‘대한민국압화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또한 식물의 특성에 따라 색과 형태를 최대한 살리는 ‘식물별 맞



춤 건조기술’과 천연식물 본연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천연식물 장기보존기술’을 주요 숙련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시는 선정된 명장에게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군산시 누리집 명장 코너에 등재해 지역의 우수 숙련기술인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군산시 명장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당 직종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명장이 보유한 숙련기술과 현장 노하우를 전수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금숙 명장은 “군산시 명장으로 선정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화훼장식과 압화 분야의 기술을 꾸준히 연

구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그동안 쌓아온 숙련기술과 경험을 시민들과 후배 기술인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지역 숙련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전문성을 쌓아온 숙련기술인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명장의 기술과 경험로 선정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화훼장식과 압화 분야의 기술을 꾸준히 연

/군산=지송길 기자

재인천 남원향우회, 고향사랑기부로 남원 발전 응원

기부금 1,600만원 기탁

재인천 남원향우회 전임 회장단이 고향 남원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담아 올해도 고향을 향한 꾸준한 나눔을 이어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한조 13대 회장, 오현규 18대 회장, 장영복 21대 회장, 이엽 22대 회장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금 1,600만원을 전달했다. 김한조 회장, 오현규 회장, 장영복 회장이 각각 500만원을 기탁했

으며, 이엽 회장은 4년 연속 100만 원을 기탁하며 고향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보였다.

타지에서 생활하면서도 고향 남원을 잊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온 이들의 꾸준한 애향심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이번 기탁 역시 고향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향우들의 변함없는 마음이 한데 모인 뜻깊은 나눔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익산 ‘제일자판기’ 생수 2,000개 기탁

익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시원한 나눔이 전해졌다.

익산시는 지난달 31일 제일자판기 오성진 대표와 배우자 박선행 씨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생수 2,0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생수는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이용자들에게 전달돼 무더위 속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오성진·박선행 부부는 이번 생수 기탁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웃

돕기 성금과 물품을 꾸준히 후원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해 왔다. 이번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생수 후원을 결정했다.

오성진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감곡천 정비공사 참여 기업들 장학금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참여 기업 4곳이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장학금 900만원을 기탁했다.

재단은 지난달 31일 정읍시청에서 ㈜더이앤씨, ㈜유신, ㈜태하엔지니어링, ㈜디에스에스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이들 기업은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시공사와 감리업체로 참여하며 맺은 지역과의 인연을 나눔으로 이어가기 위해 뜻을 모

았다. 기탁금은 지역 학생들이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학수 이사장은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인재 육성에 뜻을 모아준 기업 관계자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 광활면지사협
천사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은미)가 지난달 31일 김제 천사무료급식소를 찾아 점심 배식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최은미 민간위원장과 손순미 광활면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5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준비와 주변 정리를 도우며 봉사의 손길을 보냈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위원들이 직접 현장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은미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정읍시지사협
취약계층 30가구에 식료품 나눔

정읍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정관일)가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취약계층 30가구에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이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기탁금으로 마련됐다. 꾸러미에는 라면과 참치, 즉석밥, 곰탕 등 별도의 손질 없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료품을 담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 관계자들은 각 가정을 직접 찾아 꾸러미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들의 안부를 묻고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식료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 힘든 이웃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은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호우 피해 예방하세요!

안전수칙

상습 침수 지역 거주민은 대피를 준비하세요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다리, 하천 도로는 안전을 확인후 이용하세요

〈一事一言〉



썸짓돈 의정과 권력의 오만. 수십 년 치 도의원 사업비 전수 수사하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기관장 향한 협박성 성명…
본질은 이권 지키기

지방의회가 도민이 위임한 엄중한 권력을 어디까지 사유화하고 악용할 수 있는지, 그 참담한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최근 전북도의회가 도 교육 수장과 주요 지역 기관장을 겨냥해 집단 성명서를 발표하며 다분히 위력적이고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취한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정당 정치의 대립이나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신들의 이권에 도전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기관을 향해 권력의 뒤편을 휘두른 전형적인 '갑질 의정'의 극치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희수 도의회 의장은 독단적 결정이 아닌 '의장단 회의에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는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의장단이 모여 숙고했다고 해서 오만한 권력 남용이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의회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모의하여 기관장을 압박하는 데 동조했다는 자백이자, 도의회 내부의 타락한 기득권 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게 고착화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한 꼴이다.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고민해야 할 의회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집단

성명이라는 협악한 수단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에 도민 사회는 분노를 넘어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무소불위로 폭주하는 지방의회의 오만함 뒤에는 수십 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도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타락한 예산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도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배정 권한을 썸짓돈처럼 주무르며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의 사업 편성에 음습하게 개입해 온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다. 정당한 예산 심의 권한을 불모로 잡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나 이권 사업이 반영되지 않을 때마다 행정부와 교육청을 기강 잡듯 압박해 온 저열한 관행이 이번 집단 성명 파동의 진짜 뿌리다.

검경은 지방의회의 타락한 관행
뿌리 뽑아야

민주주의의 탑을 쓰고 혈세를 담보로 벌이는 이 같은 이권 정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 존재다. 도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감시하라고 선출된 대리인이자, 예산을 빌미로 기관장의 목외기를 하거나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라고 권력을 부여받은 상전이 아니다.

도민의 세금이 의원 개인의 해택인 양 포장되어 선심성 사업으로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유착과 밀실 거래가 오

가는 구조를 내버려 두는 한, 전북 행정과 교육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땀질식 사과나 일회성 해명으로 넘어갈 단계를 지났다. 사법당국은 더 이상 지방의회의 권력형 비리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작동한 예산 청탁과 권력 남용 정황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나아가 특정 시기의 문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구하게 이어져 온 도의원 재량사업비 내역 전체와 관행화된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투명하지 못한 예산 집행, 업자 및 기관과의 부정한 유착, 그리고 예산권을 무기로 행사된 모든 불법적 압력 행태가 성역 없이 파헤쳐져야 한다. 썩은 살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건강한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없다. 오만한 권력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단죄받지 않은 버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전북 도민들은 혈세로 자신들의 기득권 성채를 쌓아 올린 타락한 지방의회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사법당국의 성역 없는 전수 수사만이 무너진 도의회의 도덕성을 바로잡고, 주권자인 도민의 자존심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사 설

3만원보다 먼저 풀어야 할 '교사 책임' 문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을 추진하자 전북교총이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 1인당 3만원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덜고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돈이 아니다. 체험학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에서 얻기 어려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활동이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체험 기회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청이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 학교 현장이 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가 비용 때문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고 발생 이후 뒤따르는 민·형사상 책임과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민원 등이다. 아무리 철저히 안전지도를 하더라도 수십 명의 학생을 학교 밖에서 인솔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마다 인솔교사에게 책임의 화살이 돌아간다면 어느 교사가 선택 체험학습을 추진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3만원을 지원하며 체

험학습 확대에 나서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특히 지원사업이 학교별 체험학습 횟수를 늘리는 사실상의 압박으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 예산은 교육청이 지원하면서 사고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학교와 교사가 떠안는 구조라면 현장에서는 이를 교육복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업무와 위험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철호성 교육감은 취임 이후 졸곧 학교 현장과 교권 보호를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가 말로 그 약속을 보여줄 시험대다. 체험학습을 확대하려면 먼저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범법지원과 소송, 배상 등 책임의 전면에 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가 홀로 법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책도 갖춰야 한다.

아이들에게 3만원을 지원하는 것만이 교육복지는 아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안심하고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도 교육청의 책임이다. 전북교육청은 체험학습비 지원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한다. 돈보다 책임이 먼저다. 책임질 준비 없이 체험학습 확대부터 요구해서는 안 된다.

독자 투고

거제의 수해 현상이 던진 경고, 사후 복구보다 선제 차단



최근 경남 거제 지역에 사흘간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아파트 뒤 야산이 붕괴하고 도로가 침수되는 안타까운 수해가 발생했다. 순식간에 터전을 잃고 위험에 처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으로서 깊은 탄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비록 우리가 있는 지역은 이번 폭우의 직격탄을 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기후 변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 극한 호우가 파부울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거제의 참담한 수해 현상은 재난 대응의 핵심이 '사후 복구'가 아닌 '타협 없는 선제적 예방'에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토사가 완전히 쏟아지고 물이 차오른 뒤에는 아무리 뛰어난 인력과 최첨단 장비를 투입하더

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완벽히 돌려놓을 수 없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통제와 1%의 위험 가능성에도 망설임 없이 발로 뛰는 사전 조치만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가 된다.

타 지역의 안타까운 수해를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관내 위험 지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작은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고 과감히 대응하여 언제 찾아올지 모를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우리의 철저한 준비로 완결할 수 있다.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기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로 뛰어 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1팀
순경 김병후

오늘의시

유용(有用) / 송기원

육양목 속치마가 빨랫줄에서
하얗게 바래고 있네.
누가 아꼈다가 꺼낸 기다림일까.
내 마지막 남은 살점이 거기에 달라붙어
오래전의 희미한 무늬가 되네.
자세히 보니, 연한 분홍빛의
모란꽃으로 활짝 피고 있군.

내 살점의 마지막 유용이라면
몇 도만 더 조도(照度)가 밝아도 좋을 걸.
그렇게 이승에서의 살냄새도
몇 도만 더 푹푹, 모란꽃에 스며들 걸.
누군가의 기다림을, 내가 아닌
살아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4년 단편소설 '경외성서'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소설 처자식과 아름다운 얼굴, 시집 그대는 언제나 밖에, 수필집 해남 땅끝에 가고 싶다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제2회 신동엽창작기금, 제6회 김동리문학상, 제11회 대산문학상 소설부문 등을 수상했다. 2024년 세상과 작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화/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개최

〈최훈식 장수군수〉

제20회 축제 맞아 더욱 특별해진
붉은 향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는 청정 장수가 자랑하는 한우와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최고의 농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 축제입니다.

올해는 축제장을 더욱 편리하게 정비하고 다양한 신규 체험과 문화 콘텐츠를 마련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장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맛과 멋,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를 마음껏 즐기며 소중한 분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무르익는 계절, 맛과 즐거움이 가득한 장수군 대표 축제가 다시 찾아온다. 장수군은 오는 9월 10일 목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의암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는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레드푸드 축제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장수를 대표하는 한우와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붉은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장 동선을 전면 개선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더욱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과 포토존을 확대했다. 또한 신규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장수의 청정 자연과 풍요로운 장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며 지역의 맛과 멋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만나보자.

(편집자 주)

○ '장수의 맛'을 직접 경험하는 먹거리 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장수군이 자랑하는 대표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청정 자연환경에서 자란 장수한우와 달콤하고 아삭한 장수사과를 비롯해 토마토, 오미자 등 장수를 대표하는 레드푸드를 다양하게 즐기는 미식축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한우마당'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된다. 작년에 이어 한우마당 부지에 전체 홀텐트를 설치하여 관람객의 편의성을 증대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장수군 관내 한우판매업체가 참여하여 최고품질의 장수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한우마당의 방문객들은 원하는 부위를 직접 구입한 뒤 셀프식당에서 즉석으로 구워 먹을 수 있으며,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장수한우를 맛볼 수 있다. 또한 비선호 부위 할인판매와 예약배송 서비스, 생선이 려게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한우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장수의 대표 특산물인 홍로사과도 축제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큰 일교차와 청정 자연에서 자란 장수사과는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축제에서는 제철 홍로사과를 비롯한 다양한 품종의 사과를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사과마당'에서는 장수군 전역에서 생산된 우수 사과를 전시·판매하며, 사과 품평회를 통해 색택과 당도, 과형 등 품질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농가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장수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레드푸드존'에서는 장수한우와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사과파이를 비롯한 토마토 피자, 한우초밥 등 장수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메뉴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미식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그 외에도 장수 청정 농산물인 오미자, 사인머스켓과 같은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장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 장수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대한민국 최초, 레드푸드 테마 미식축제 9월 10~13일 의암공원·누리파크 일원

이번 축제는 단순히 먹거리를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장수의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특별하고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의 참여를 높인다.

특히 축제장에 들어서면 약 1.7톤에 달하는 초대형 종모우 '대한이'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대한이'는 장수한우의 우수성과 상징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특별한 볼거리로 이번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셋째날에는 유명 셀럽인 방승민, 홍석천과 함께 장수한우와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며 장수 식재료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레드푸드 요리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9월 13일(일)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사찰음식 장인 정효선님과 함께 연잎밥을 비롯한 장수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식재료로 평소 애 먹기 힘든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사과볼링과 사과양궁, 사과골프, 사과낚시 등 장수사과를 활용한 게임형 체험부터 사과 키팅과 키펀, 팔찌, 볼펜, 컵받침 만들기까지 직접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여기에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사과로또 이벤트까지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장수사과를 색다른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누리파크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레드푸드를 찾아라'가 한층 재미있게 돌아온다. 발물놀이터를 가득 채운 공속에서 한우와 사과, 오미자 등 장수의 레드푸드를 상징하는 보물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물을 찾은 참가자에게는 장수한우와 사과, 오미자 등 실제 농특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경품도 주어진 다.

또한 축제기간 누리파크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치!티니핑 공연이 9.13.(일) 13시, 16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물놀이와 보물찾기의 재미에 캐치! 티니핑까지 푸짐한 선물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더해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 공연·경연·품평회까지...은 가족이

즐기는 축제

축제 기간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경연, 장수한우·사과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온 가족이 즐기는 축제로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에는 샌드페블즈, 육속80의 전야 공연으로 추억의 대학가요제 리턴즈 무대가 펼쳐진다.

둘째날에는 개막축하콘서트로 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아모르파티의 김연자, 미스터트롯 손빈아와 인기그룹 유니스와 가창력 가수 배기성, 장수군 출신인 무명전설의 정윤영이 화려한 무대를 펼친다.

셋째날에는 레드콘서트로 민경훈과 먼데이키즈의 공연이 펼쳐지며 마지막날에는 트로트가수 박현빈, 윤세준, 오로라가 화려한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또한 지역예술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번암지역 아동으로 구성된 번암윈드오케스트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장수문화원의 빛나는 오케스트라, 장수무형문화유산 1호인 장수문화원의 기절놀이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도 선보인다.

곤포아트전에서는 농촌을 상징하는 대형 곤포에 다양한 디자인과 예술작품을 입혀 장수만의 특색 있는 농업문화를 표현하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의 또 다른 볼거리인 전국 한우 곤포나르기 대회는 장수를 대표하는 이색 경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장수한우의 먹이인 무거운 곤포를 옮기며 힘과 순발력을 겨루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고, 관람객들은 현장의 열기와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우 품평회와 사과 품평회도 열린다. 우수한 품질의 한우와 사과를 생산한 농가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장수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생산 농가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욱 편리하고 아름답게 달라진 축제장

제20회를 맞아 축제장은 관람객 중심으로 새롭게 단장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인무대를 종합운동장으로 재배치해 공

연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먹거리 공간과 휴식 공간의 동선을 보다 편리하게 구성해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축제장 입구에는 대형 안내 조형물과 꽃 조형물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쉽게 축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암호 테크에는 한우와 사과 모형으로 만든 에어비존스를 비치해 축제의 시작부터 장수만의 따뜻한 환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우와 사과를 주제로 한 대형 포토존과 사과 정등거리를 새롭게 조성해 낮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밤에는 화려한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또한 축제장 곳곳에 약 1만 본의 비베고니야로 꾸며 장수를 대표하는 레드컬러 축제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축제장 곳곳에는 휴식이 가능한 쉼터와 캠핑의자, 테이블 등을 설치해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암공원에서는 이동식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관람객들의 문화생활을 돕는다. 또한 축제장 곳곳에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해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운영

장수군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안전관리와 교통·주차 대책, 위생관리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운동장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 방문객들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행사장 주변 교통 흐름과 보행 동선을 편리해 혼잡을 최소화한다.

또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주요 구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먹거리 부스는 위생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사장 내 화장실과 휴게 공간 등 각종 편의시설도 정비해 방문객들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올해로 스무해를 맞이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는 청정 자연과 풍성한 먹거리,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장수군 대표축제로 한우와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장수의 대표 농특산물을 매개로 지역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장이 될 전망이다.

방문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가을 추억을, 지역에는 활력을 선사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드푸드 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